

성명	박혜운	수험기간	2023.03~2025.07.
학교	카이스트	전공	전기및전자공학부
키워드	최연소 기득 민소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제62회 변리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박혜운입니다. 2023년 3월에 진입해 기득으로 합격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정말 많은 합격수기를 읽으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합격해 수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 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공부 방법도, 부족한 부분도 다르기에 제 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것을 극복한 방법이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차 때까지만 해도 합격해서 수기 쓰는 상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의 공부 방법이나 이 시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일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기득을 지나며 이 어려운 시험에 대해 무엇인가를 단정하거나 안다고 말하는 것조차 오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남짓의 수험기간을 지나며 고민한 것이 전부이기에 시야가 충분히 넓지 않습니다. 혹시 제 글이 온 좋은 합격자의 치기 어린 판단으로 보일지라도, 하나의 사례로 너그럽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별 공부 방법

-1차-

3월에 전업으로 진입하여 대부분의 강의는 개강 시기에 맞추어 들었습니다. 모두 인강으로 수강하였고 복습은 전혀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일찍 진입하여 시간이 넉넉한 편이었고 공부 습관도 잡혀있지 않아 12월까지의 주 6일 하루 7~8시간 공부했습니다. 1월부터는 마음이 급해져서 하루 9~10시간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계속 혼자 공부해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11월부터는 위치 파악을 위해 학원 모의고사를 응시하였습니다. 10월까지의 과외를 병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각 과목 기본강의가 끝난 뒤 7-10월에 동차 합격의 꿈을 안고 민사소송법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이 역시도 복습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민소법 강의를 미리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재산권법 97.5점, 민법개론 92.5점, 자연과학개론 75점을 받아 평균 88.33점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동차-

	3월	4월	5월	6월
민사소송법	이창한 심화강의	이창한 실전A	이창한 기초	이창한 실전B
특허법	박형준 기초 GS+		박형준 실전A, B	
상표법	한경훈 기초 GS+		한경훈 실전B	
저작권법		기본강의	기초	실전

지방에 거주하였으나 GS는 전부 현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서 일요일 밤늦게 내려오는 일정이었습니다. 3GS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한 시가 넘었지만, 월요일 오전에도 평소처럼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동차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차 때 민사소송법 기본, 사례를 들어서 3월에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하루에 6강씩 들어서 3월 20일 이전에 완강 후 4월 실전 A를 대비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본서 회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목인지 감도 잡지 못했기에 실전 A에서는 책을 보고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6월 실전 B에서는 책은 보지 않았지만 30~50% 정도의 성적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워서 쓴다는 느낌이 강했고, 결국 동차 기간 동안 민사소송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허, 상표는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의 동차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랐고 특허는 5월에 실전 A를 추가로 혼자 썼습니다. 4월까지 책을 보고 썼고 5월부터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 10~50%의 성적을 받았고 기복이 심했습니다.

복습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GS 직후에는 복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월 말부터 전에 풀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여전히 회독 방법을 몰랐고 암기만 하였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그게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공부량에 비해 쌓이는 것이 너무 없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답을 많이 틀렸고 특허법 48.33점, 민사소송법 58.66점, 상표법 55점, 저작권법 54점을 받아 1.2점 차이로 불합격하였습니다.

-기득-

	11월	12월	1월	2월
민사소송법	이창한 심화강의			
특허법	박형준 기본강의		박형준 사례강의(상)	박형준 사례강의(하)
상표법		기본이론강의		
	3월	4월	5월	6월
민사소송법	실전A	이창한 실전A	실전B	이창한 실전B
특허법	박형준 실전A	박형준 판례강의		박형준 실전B
상표법		실전A	실전B	실전B2
저작권법				실전

동차 시험을 마치고 복학하여 15학점을 수강했습니다. 발표 전까지는 공부가 잘되지 않아 민소 사례집을 2회독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차 결과를 보고 저의 공부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똑같이 하면 내년에는 소수점 탈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매일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출제자는 어떤 답안을 원하는지, 법학을 이해한다는 건 뭔지, 공학 과목과 법 과목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며 어떻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지 등을 열심히 물어보며 저의 생각하는 방식, 글 읽는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막무가내로 공부했는데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제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기득 때에는 불운이 따라도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실력을 갖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2월 말 종강 이전에는 강의 수강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1, 2월에는 기본서 암기 및 사례집 풀이를 하면서 특허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항상 하루에 민소-특허-상표 순서로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상표 공부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5월을 제외하고 GS는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이동시간과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실전처럼 쓸 의지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수강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강평을 곧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올라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일에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보통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배속으로 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느라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특허는 사례강의를 수강해서 3월 GS부터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3월 GS가 정말 어렵게 느껴져서 좌절했습니다. 이것은 1, 2월 내내 얇은 책을 외우다가 3월 말에 통합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표는 공부량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4월 GS부터 성적이 잘 나왔고, 다소 방심해서 공부를 적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대부분의 GS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받았지만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GS 성적이 잘 나오다가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고, 예전에 풀어봤거나 방금 봐서 잘 쓰는 것을 실력이라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4~6월에 사례스터디를 하며 주 2회 1시간 쓰기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일에는 전혀 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서

와 사례집 등만 봐도 평일에는 이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저는 기득 기간 내내 아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작권법은 동차가 끝난 이후로 전혀 보지 않다가 5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기본서를 읽었고 그마저도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3법 평균이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것보다 저작권법 50점을 못 넘겨서 불합격하는게 훨씬 더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6월부터는 하루 1시간 정도는 투자했습니다. 다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는 전혀 보지 않았고 밥 먹는 시간이나 자기 직전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63.66점, 특허법 52점, 상표법 51.33점, 저작권법 70점을 받아 평균 55.66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2.5점	97.5점	75점

-민법- <점수: 92.5점>

【강의 및 교재】

강의: 기본강의, 중급강의, 객관식 강의, 최신판례 강의

교재: 민법공방, 민법공방 연습

【회독 방법】

당시에는 이해와 정독을 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기본서 회독 시 모든 글을 통암기하듯이 읽었습니다. 문장을 읽고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그대로 떠올릴 수 있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수십 회독을 했지만, 회독 주기가 잘 단축되지 않았고 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익숙해져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법 공방 연습은 답을 가리고 푼 다음 답을 맞히면 넘어가고 틀린 문제는 표시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회독하였습니다.

틀리더라도 기본서를 찾아보거나 고민해보지는 않았고 그냥 답만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한번은 모든 문제를 회독하고 한번은 틀린 것만 보고 하는 식으로 계속 형식을 바꿔가며 회독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와 답 자체를 외워서 풀게 되었지만 시험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어서 그렇게 공부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험 전날 1회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험 4일 전부터 기본서를 3일간 천천히 1회독하면서 시험 전날 다시 볼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였고 시험 전날에는 그것만 보는 식으로 간신히 전체를 훑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는 민법 공방 연습의 5번 이상 틀린 문제들을 1회독 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7.5점>

【특허법】점수: 20/20

강의: 기본강의, 조문강의, 객관식 강의

교재: 기본서, 기출객관식, 판례집, 조문집, 실전 모의고사, 산재법 조문 비교표

민법 기본강의 완강 후 기본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책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강의 듣고 복습을 하지 않아 습득이 더뎠습니다. 기본서와 같은 시리즈의 요약서가 출간될 때까지 기본서를 5회독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 기본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데 단권화용 요약서로 넘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험 직전까지 두꺼운 기본서를 주교재로 하며, 판례집, 조문, 기출을 병행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을 긋거나 필기를 한 것이 별로 없어서 기본서를 읽으면서 강약 조절을 하기 어려웠고 시험에 안 나올 내용들까지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봤던 기출객관식은 해설이 부실한 편이었는데 저는 객관식을 풀 때 왜 이게 틀렸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선지와 정답 자체를 외우는 식으로 학습했기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기본서를 봤다가는 지엽적인 것만 보고 갈 것 같아서 판례집, 기출에서 표시해둔 부분과 조문을 각 1회독 했습니다. 추가로, 당시 기출객관식 교재에는 기출만 수록되어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12회의 모의고사가 수록된 실전 모의고사가 난도가 높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표법】점수: 10/10

강의: 기본강의, 핵심이론정리강의

교재: 상표법 통합 기본서, 핵심이론정리, 기출문제집, 객관식, 산재법 조문 비교표

김영남 변리사님의 기본강의와 핵심이론정리 강의를 수강하였고 기본서를 5회독 정도 한 뒤에는 계속 100페이지 남짓의 핵심이론정리만을 회독하였습니다. 해당 교재는 1차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도 2차 경용으로 간결하게 쓰인 책이라 특허법보다는 접근이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2차 상표법을 대비하는데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표법이 어떤 과목인지 파악도 하지 못한 채로 핵심이론정리만을 외웠고, 동차 때 상표에 대한 기본기가 전혀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당시에는 김영남 변리사님께서 산재법 조문 비교표를 무료로 배포해주셨는데 이것이 산재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책을 뒤적이면서 비교하는 것을 귀찮아했기에 한눈에 세 과목을 다 볼 수 있고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회독하며 조문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지엽적인 부분까지 암기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점수: 9/10

강의: 기본강의, 최종정리강의

교재: 기본서, 진도별 기출문제&모의고사 문제집, 최종정리강의 교재, 산재법 조문 비교표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강의와 최종정리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서와 문제집을 반복해서 회독하다가 최종정리강의 수강 이후에는 최종정리강의 교재와 문제집을 주로 봤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양도 적고 공부도 덜 했던 과목이며 지금은 오래되어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기출을 풀면 무난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5점>

【물리】

~교재: 기본서

강의는 듣지 않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개념과 연습문제, 약 10년 치 정도의 기출이 수록된 기본서 성격의 교재를 3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스퍼트를 한다고 잠을 줄여서 당일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법 과목을 풀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졸렸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리 문제를 푸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화학을 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단순 계산 실수도 많이 해서 시험 직후 물리 때문에 자연과학이 과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개 맞았습니다.

【화학】

교재: 기본서, 객관식

강의는 듣지 않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화학은 물리에 비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유기화학 부분은 전혀 몰라서 물리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개념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 단원별로 기출이 수록된 기본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시험에 임박하여 문제를 더 풀어야 할 것 같아서 같은 시리즈의 객관식도 사서 풀어보았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어려웠고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행히 제대로 푼 문제는 다 맞아서 5개 맞았습니다.

【생물】

교재: 요약서, 객관식 문제집

강의: 중급강의

생물은 고등학생 때 공부한 것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처음에 500페이지 남짓의 기본서를 구매하였는데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후 400페이지 정도 되는 요약서로 회독하기 위해서 해당 교재로 이루어지는 중급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많이 좋아서 제대로 들은 부분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재 자체도 처음에는 난해하게 느껴졌고 강의 수강 후에도 회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 객관식을 풀게 되었습니다. 해당 객관식 교재는 문제 옆에 관련 개념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도 한꺼번에 공부하기에 좋았습니다. 객관식을 여러 번 풀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뒤에 다시 요약서로 돌아가 회독하였고 그제야 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쉽게 나와서 10개를 다 맞았습니다.

【지구과학】

교재: High End 지구과학

강의: 기본강의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한 권의 책에 문제와 개념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념을 몇 번 회독하고 연습문제와 기출을 풀었습니다. 암기 위주의 파트를 제외하고는 책에 있는 개념을 자세히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다가, 시험이 임박하자 갑자기 불안해져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시험이 다소 어렵게 나왔고, 8개 맞았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관리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법 과목은 공부량이 충분하다면 시간 관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별히 시간을 의식하지 않았고,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어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자연과학은 생물 → 지구과학 → 물리 → 화학 순서로 풀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생물·지구과학 5~10분, 물리 20분 내외, 남은 시간을 화학에 집중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물리에 20분을 넘겨 사용했고, 그 여파로 화학에서 시간이 부족해 풀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연과학은 사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63.66점	52점	51.33점	70점

-민사소송법- <점수: 58.33->63.66>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본강의, 사례강의, 심화강의

▪ 교재

주교재: 통합 민사소송법

부교재: 통합 사례집, 통합 기출문제 핸드북, 타 사례집 2권, 요약서

【동차 기간】

1차 기간에 기본강의, 사례강의를 수강하였기에 3월에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순전히 들었던 것을 한 번 더 듣기는 싫고 혼자서는 회독을 안 할 것 같아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강의 진도에 맞춰서 1회독을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결국 기득 시작할 때 심화강의를 한 번 더 듣게 되었고 같은 내용임에도 그때는 훨씬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4월부터는 GS를 수강하였고 평일에는 기본서와 사례집을 회독하였습니다. 기본서는 하루에 80p를 목표로 무작정 외우면서 읽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읽고 눈을 감고 해당 페이지에 있는 판례 등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이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림을 외우듯이 외웠기에, 사례집도 스스로 생각해서 풀 수 없었고 문제를 읽고 답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회독했습니다. 암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정도 답안을 채울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기억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서를 다 소화하지 못해 시험 직전에는 사례집과 GS를 위주로 회독했고 시험 전날에도 사례집을 1회독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통합 민사소송법, 통합 사례집 이외에 다른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논리 구조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으므로 목차를 잡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잡은 목차가 강사 목차와 달라서 막막했다는 합격 수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본서, 사례집, GS 목차를 외워서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목차를 잡지 못했습니다. 6월이 되도록 실력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순간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득 기간】

동차 때 민사소송법 점수가 저조했기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차 때 외운 것은 다 잊어버렸고, 여전히 목차를 잡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간 이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깨달은 상태였기에 심화강의를 다시 들으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고 제가 택했던 방법은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공감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각 판례와 기본서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마음을 열고 그 취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세한 암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위치설정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월부터는 무작정 얇은 요약서를 통암기 했습니다. 내용을 전부 세부적으로 외우지는 못했고 목차를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약서 목차들을 이용해 작성된 기출사례집을 보면서 목차 잡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러자 사례집 목차를 이전보다는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GS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요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약서는 답안지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고, 추가해야 하는 판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심화강의 들은 이후 한 번도 펼쳐

보지 않았던 통합을 꺼내서 급하게 목차에 형광펜을 칠한 것이 3월 말이었습니다.

요약서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위치설정을 한 뒤에 다시 통합을 보자 이제야 강약 조절을 하고 답안지 목차구성을 고민하면서 통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통합만을 반복 회독했는데 동차 때는 각 페이지를 그림처럼 외우고 넘어가는 것을 회독이라 여겼다면 기득 때는 읽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전체에서의 위치나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을 고민한 뒤에, 암기해서 그대로 말할 수 있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머릿속에 생기자 통합의 가독성이나 분량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합에는 계속 까먹거나 이해가 안 되는 지엽적인 내용들만 표시해두었기에 시험 전날에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기 위해 요약서를 1회독 하였습니다.

민소는 사례집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상표보다는 수학 같은 느낌이 강한 과목이고, 시험에서 답이 틀리면 점수가 여지없이 깎이는 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간 답이 갈리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사례를 풀 때는 단순히 문제를 읽고 목차를 잡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른 내용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답안이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을 바라고 낸 문제이며 왜 저자는 출제의도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았습니다. 각 사례집에는 겹치는 문제도 많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어떻게 목차를 구성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기에 여러 권을 풀었습니다. 핸드북은 기출문제에 적응하기 위해 풀었습니다. 사례집을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차를 손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안의 전체적인 구성(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분량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과 대목차 정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식으로 회독하여 1~2시간 내 100페이지를 풀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점수: 48.33->52>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본강의, 사례강의(상, 하), 판례강의

▪ 교재

주교재: 준특허법+

부교재: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준특허법 통합사례집(상, 하), 타 사례집 1권

【동차 기간】

3~4월에 기초 GS+, 5~6월에 실전 B를 수강하였고 5월에 실전 A를 혼자서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가 수록되어있는 사례집(상)도 풀어보았으나 제대로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동차 때는 총알을 많이 암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기본서를 암기했습니다. 3~4월에는 본문 위주로 암기하고, 5~6월에는 각주에 있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시험이 임박해서는 학설이나 원심 판례와 같은 +@ 사항은 배제하고 대법원 판례 및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외워야 하는 일반론 위주로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양을 줄이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주에 나오는 내용들은 답안에 쓸 수도 없는 것들이기에 동차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성격상 강약 조절을 정말 못해서 중요도에 따라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거의 균일하게 봤습니다.

【기득 기간】

동차 때 준특허 교재와 강의가 마음에 들었기에 강의를 전부 수강할 생각으로 패스를 끊었습니다. 기본강의는 학교에 다니며 11월~12월에 틈틈이 수강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복습은 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회독하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강사님의 설명을 최대한 사소한 것까지 다 필기하려고 했습니다.

1~2월에 사례강의 (상), (하)를 수강하였습니다. 사례강의는 5분 정도 목차를 잡고 해설을 듣는 식이었는데 이때 저는 암기된 것이 전혀 없었기에 대부분의 문제는 목차를 잡지 않고 바로 해설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례강의를 대충이나마 듣고 나니까 GS에서는 대체로 성적이 잘 나와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GS 시즌에는 사례집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았고 가끔 사례집(상)만 풀어보았습니다. (하)는 6월 GS 시작 직전에 남은 주말이 있어서 감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 동안 1회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판례강의는 들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2월부터 혼자서 판례집을 읽었습니다. 판례집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이동시간에 많이 봤습니다. 판례집에 도식화 자료가 잘 되어 있어 판례의 핵심을 파악하기 수월했습니다. 판례집은 도식화 자료를 보며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하고->어떤 법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고->사안포섭을 분석하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혼자 회독하다 보니 자꾸 앞부분만 열심히 보고 뒤로 갈수록 대충 보는 것 같아서 4월에 판례강의를 빠르게 수강했지만, 이 역시 뒤로 갈수록 대충 듣게 되었습니다.

기득 시기에도 존특허를 최대한 외웠습니다. 동차 때는 각주는 읽어보기만 했다면 기득 때는 각주에 있는 판례도 많이 외웠습니다. 하지만 자칫 지엽적인 내용을 외우다가 중요한 내용을 소홀히 하게 될까 봐 대법원 판례를 선명하게 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독점규제법 등 출제 확률이 현저히 낮은 부분들은 적당히 답안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상표법- <점수: 55->51.33>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본이론강의

▪ 교재

동차: 데생 상표법 점(기본서), 데생 상표법 선(판례집), 데생 상표법 피날레, 사례집

기득: 기본서, 데생 상표법 선(판례집), 데생 상표법 피날레, 최신판례 6개년 자료

【동차 기간】

3~4월에 기초 GS+를 수강하고 5~6월에 실전 B를 수강했습니다. 1차 때 거의 핵심이론정리만 봤기 때문에 상표법이 어떤 과목인지 잘 몰랐고 완전히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표법은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판례가 중요한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GS 복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평일에는 민소, 특허를 하느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3월에는 상표를 거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위기감을 느끼고 상표에 대한 감을 빠르게 잡을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때 선택한 것이 사례집이었습니다.

4월 초에 주중에 하루 2시간 정도씩 시간을 투자해서 일주일간 사례집을 1회독했습니다. 목차를 스스로 잡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문제와 답안을 '구경'한 뒤 외워야 하는 판례나 답안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암기하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그렇게 사례집을 회독한 뒤 GS를 쓰러 가자 답안 구성이 조금은 쉬워졌습니다.

이후에는 주로 기본서를 회독하며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상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강약 조절을 하지 않았기에 6월까지도 중요한 내용임에도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전체를 조망하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판례의 위치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본 판례 문구들만 막연히 떠오를 뿐 정확히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었던 책이 피날레였습니다. 저는 내용이 많은 책을 좋아해서 기초 GS+ 수강 때 필기만 해두고 피날레를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에 피날레를 다시 꺼내 회독하면서 상표법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서를 읽다 보면 계속 판례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저의 문제였는데 피날레는 목차 위주의 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얇은 책임에도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3~4월에는 이게 좋은 책인지도 몰랐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뒤에 다시 보자 정말 잘 쓰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특히 1회독을 하고 나니 상표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어 피날레를 1회독 했습니다.

【기득 기간】

기득 기간에 기본서를 바꿨습니다. 기본서를 바꾼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12월 말까지 제가 한 유일한 상표 공부해 해당 기본서 두문자 암기자료를 외운 것이었고, 동차 때 봤던 사례집이 마음에 들어 이와 호환되는 기본서를 보면 사례집을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재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해당 책에 적응하기 위해 12월 말에 10일 정도 만에 기본이론강의를 완강했는데 급하게 듣다 보니 별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득 이상이라면 많이 듣는 판례강의를 수강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사례집 때문에 기본서를 바꾼 것인데 기득 때 시간이 없어서 상표 사례집을 한 번도 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례집도 기본서와 같은 시리즈로 바꾸려고 했지만, 저의 실력으로는 강의 없이 혼자 읽기에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상표 판례집을 안 볼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맞는 책을 고르기 위해 총 3권의 책을 비교해봤는데 저는 데생 판례집의 컴팩트함이 좋아서 결국 동차 때 보던 판례집을 그대로 봤습니다. 상표 판례집은 사실관계 파악->설시된 법리 암기->사안포섭 읽어보기 순서로 공부했고, 특히 판례집보다는 좀 더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봤습니다. 당연히 대충 읽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판례집 보는 걸 자꾸 미루게 되어 대충이라도 여러 번 보자는 생각으로 회독했습니다.

기득 시기에는 기본서를 회독할 때도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조문의 요건을 두문자로 기계적으로 암기한 뒤 각 요건 아래 어떤 판례가 몇 개 있는지 외웠습니다. 기본서를 읽을 때는 판례집의 사실관계를 떠올렸고 판례집을 읽을 때는 기본서에서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6월에는 동차 때 봤던 피날레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답안작성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 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답안 구성 능력 유지 목적으로 피날레를 회독했습니다. 보통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봤는데 양이 적어 1-2시간 만에 상표법 전체를 상기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작권법- <점수: 54->70>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본강의

- 교재
기본서

【동차 기간】

저작권법이 양이 적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5월에 기초 GS, 6월에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기초 GS는 인강으로 수강했기 때문에 답안을 직접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와 답안을 읽으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식으로만 공부했습니다. 6월에 첫 답안을 작성했는데 5월부터 책을 안 보고 썼던 타 과목들과 달리 7회차까지 책을 봤고 8회차만 책 없이 작성했습니다. 동차 때는 아는 게 없어서 최대한 조문을 그대로 베껴 적는 식으로 양을 늘렸습니다. 5월부터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기본서를 암기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처음 보는 조문이 나왔고 모르고 있었던 최신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냥 양만 채우자는 생각으로 18페이지 정도 소설을 작성했고 54점을 받았습니다.

【기득 기간】

4월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동차 때 보던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6월에 실전 GS를 들었는데 채점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불안해졌습니다. 다만 이때 처음으로 피침해 저작물과 침해 저작물이 완전히 같을 때와 차이가 있을 때를 구별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6월에 다른 과목 GS 성적이 잘 나오자 저작권법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불합격하더라도 3법 평균 때문에 탈락하는 것이 선택 탈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투자했고 기본서도 각주까지 다 외웠습니다. 시험 날 문제가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채점이 후하게 이루어졌는지 70점을 받았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 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4페이지	약 20자	1.목차 사이에 엔터 X I.목차 사이에 엔터 O	세로 폭의 2/3 정도
특허법	21페이지			
상표법	21페이지			
선택과목	20페이지			

【글씨】

글씨가 예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써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 교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유일하게 고친 부분은 제가 자과 르을 헛갈리게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글자 해독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자 쓰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동차 때 양을 많이 채우려고 글씨를 크게 썼고, 그게 습관이 되어 글씨는 계속 크게 썼습니다. 아래는 제가 시험 2주 전에 작성한 민사소송법 답안지인데 실제 시험에서의 글씨는 이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소는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면 글씨 때문에 불이익받지는 않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이전 방식
구현 할수 계속 글, 파악도인어 할수한 상대로
할수의 한로공공권, 부대입장은 재확인나 같다.

(3)부대입장 취지 보스 있는 경우
① 취지는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
의 각각 공적권 선행이 법제에 개입된 시점에
계속하는 2기 2기 상의법의 취지인 보관되는
우 부대입장 취지 보스 있다 한다.

② 취지는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인
상한 부분이 2기 2기 상의법의 취지인 부대입장
한다.

(4)사실
①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인 보스 있는
같은 취지인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관습도 부대입장 취지인 보스 있다

②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인 보스 있는
같은 취지인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관습도 부대입장 취지인 보스 있다.

③ 제 1법의 취지인 보스 있는 관습을 지닌
취지인 보스 있다.

3. 취지인 보스 있는 관습을 지닌
① 의 취지 - 제 1법과 유사한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인 보스 있는
관습을 지닌 보스 있다.

(5)취지인 보스 있는 관습을 지닌
①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인 보스 있는
관습을 지닌 보스 있다.

②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인 보스 있는
관습을 지닌 보스 있다.

③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인 보스 있는
관습을 지닌 보스 있다.

(6)사실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인 보스 있는
관습을 지닌 보스 있다.

4. 두로
제 1법과 유사한 관습을 지닌 취지인 보스 있는
관습을 지닌 보스 있다.

III. 결론(3)
1. 결론

【사용한 펜】

에너지 슬림에 0.7 리필심을 장착해서 사용했습니다. 얇은 펜대를 선호하여 일반 에너지는 너무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동차 때는 일반 에너지보다 조금 얇은 트라디오를 쓰다가 기득 때 더 얇은 슬림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필기구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에너지 슬림+0.7리필이 가장 마음에 들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파지법이 정석적이지 않고 펜을 지나치게 세게 잡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처음에는 엔젤그립을 사용해봤는데 손이 작아 잘 맞지 않았습니다. 기득 때는 펜타그립을 썼는데 잘 맞았기에 손이 작아서 엔젤그립이 불편한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기득 시기 사용했던 펜의 모습입니다.

기득 때는 손목보호대도 계속 사용했는데 5개 이상의 손목보호대를 사용해 본 결과 런워크 손목보호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엄지를 잘 잡아주면서도 편안하여 필속에 지장이 없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문제를 풀 때는 날짜와 주체에만 기계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디에 어떤 표시를 할지 정하여 훈련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시만 했습니다.

목차는 문제지 여백에 대목차만 잡았습니다. 대목차도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고 보통 한두 글자 정도로 알아볼 수만 있게 잡았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36-24-36-24를 최대한 맞추려고 했습니다. 물론 맞추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맞추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필속이나 문제 읽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서인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답안작성 스킬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차 때 내용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서 답안지 형식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을 많이 틀리고 주논점 누락한 문제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택했던 방법은 본문을 목차보다 조금 들여 써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합격자분이 해주신 조언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목차에 적극, 소극을 병기하거나 키워드 또는 정답에 따옴표를 치는 방식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도해 본 적도 있었는데 동차 때부터 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하려니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판례는 한자로 작성했고 조문은 '제 몇조 몇항'의 형식으로 기재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특허와 상표는 21페이지를 작성했는데, 답안을 새로 받고 이름을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면서 두 번째 답안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고, 특히 특허법은 손을 들었는데도 감독관이 확인하는 데 한참 걸려서 답안을 받는 데만 1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두 번째 답안지는 민소를 제외하고는 채 1페이지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답안지 2권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히 전략을 세우거나, 그냥 20페이지 안에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시간 관리 및 공부 장소】

기득 1~3월에 잠깐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에서 5분 거리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보통 아침 8시에 책상에 앉았고 아침에 너무 졸렸기 때문에 9-10시 즈음에 한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자는 것이 루틴이었습니다. 1차, 동차 시기에는 밥 먹고 다시 책상에 앉기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던 것 같은데 기득 시기에는 간절함이 커져서 보통 1시간 이내에 다시 착석했습니다.

동차 때까지는 시험 한 두 달 전을 제외하고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만 공부했지만, 기득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산책을 많이 했는데 산책하는 시간도 아껴져 하루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길을 갈 때도 암기해야 하는 내용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걸었습니다. 1차 공부할 때는 일요일은 쉬었는데 2차 공부할 때는 주말에 GS를 써야 해서 쉬는 날은 따로 없었습니다.

과목별 시간 분배에는 실패했습니다. 기득 기간 내내 아침에 민사소송법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특허법, 상표법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상표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점수를 보니 그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주 3~4회 운동하였습니다. 한번 운동하면 적어도 2~3시간이 소요되었기에 늘 귀찮았고 시간이 아까웠지만, 운동하지 않아서 체력이 무너지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저는 복싱을 했는데,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손목을 다칠까 봐 불안했습니다. 2차생이라면 손목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가짐】

1. 최악을 상정하고 공부하기

합격선 근처에 많은 사람이 촘촘히 모여 있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하면, 점수가 낮았던 문제를 떠올리며 ‘이것만 맞췄더라면’, ‘다른 책이나 자료를 봤더라면’, ‘운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엄청난 무력감을 가져옵니다.

저도 동차 불합격 이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득 기간 내내 아무리 불운이 따르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라도 붙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실력을 기르겠다는 의지로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우고 문제를 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대적인 실력이 무엇인지를 매일 고민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추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나마 직관적인 방법은 고득점 합격자와 커트라인 근처 합격자의 수기를 여러 개 비교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와 통찰이 어떻게 다른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나란히 놓고 보며 고득점은 왜 가능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합격 수기를 보면 그 합격자가 어디까지 깨닫고 합격에 이르렀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득점자들이 그 ‘아는 것’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혔는지를 가능해보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상황은 아예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득 시험 날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하고, 감독관 때문에 당황하고, 쓴 것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합격할 방법을 찾아야 합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GS 성적이 잘 나온 날에는 GS 성적이 좋아도 불합격한 사례들을 떠올렸고, 실력이 오른 것 같다고 느낀 날에는 자신감이 있었음에도 불합격한 사례들을, ‘동차 때 점수가 나쁘지 않았으니 기득 때는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에는 기득 때 점수가 오히려 떨어진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저는 상표법 1번과 3번에서 각각 37점, 32점이라는 낮은 문항별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잘 본 민사소송법은 평소 기조에 비해 채점이 박했고, 못 본 상표법은 채점이 후했습니다. 그런데도 커트라인과 2.6점 차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사후적 고찰이지만,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다 보면, 합격확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기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자 노력하기

수기를 보면 기득 내내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동차 때보다 기득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득 이상이 훨씬 아는 것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 사항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 동차 시기에는 아는 것이 없었기에 양을 채우기 위해 사안포섭을 충실히 하고 아는 것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러나 기득 시기에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사항에 욕심을 부리다가 사안포섭의 분량이 줄어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사안포섭을 더 풍부하게 해보고 답안지 내 비중을 다시 조절해 보았습니다.

1년 더 공부한다고 합격확률이 극적으로 오르는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 자체는 좋아지는데도 말입니다. 오로지 답안지로 평가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붙는데 그럴수록 자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아는 만큼 답안에 드러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니다. 기득 때는 전화 암기 스터디라도 해볼까 했지만 혼자 외울 시간도 부족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원래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는 편이 아니고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 따라서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입했는데, 동차 때까지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같이 경쟁하며 공부할 사람이 있었다면 좀 더 빨리 합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득 때는 압박감이 정말 커져서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윌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1. 민사소송법 - 통합 민사소송법

소화하기 어려운 책임은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동차 기간 동안 통합으로 공부했음에도 민사소송법이 도대체 뭐 하는 과목인지도 깨닫지 못했기에 기득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답안지에 그대로 옮기기 용이한 얇은 책을 보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얇은 책을 회독하면서 배운 것도 있었지만 그 책을 계속 반복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의 상한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빨리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7월까지 그 책만 계속 암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3월 말에 책을 바꾸는 다소 과감한 선택을 했고, 저는 이 덕분에 민소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공부할수록 실력이 계속 오르는 책임입니다. 회독을 거듭할수록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많고 글씨가 빼곡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실력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가독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부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저는 민소법 실력을 쌓는데 통합만 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특허법 - 사례강의, 판례집

사례강의는 (상), (하)를 불문하고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스스로의 무지를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강의는 내용이 어렵더라도 적당히 듣고 넘겼는데, 특허 사례강의는 물리적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많은 고통은 빠른 성장을 수반하기에, 강의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례강의를 듣고 나니 3월부터 특허 GS는 거의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 심적 부담이 덜했습니다.

2차 공부하는 내내 판례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저에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잘 활용했던 판례집이 준특허법 쟁점판례집이었습니다. 특허 판례에는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는 기술적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원문만 읽어서는 자칫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판례집은 판례마다 도식화 자료 및 요약이 잘 되어 있어 이 판례가 왜 중요한지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별 중요도 설정이 되어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별 3개 이상인 판례는 요약을 읽고 원문도 읽었고 별 0~2개인 판례는 요약 자료만 읽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3. 상표법 - 피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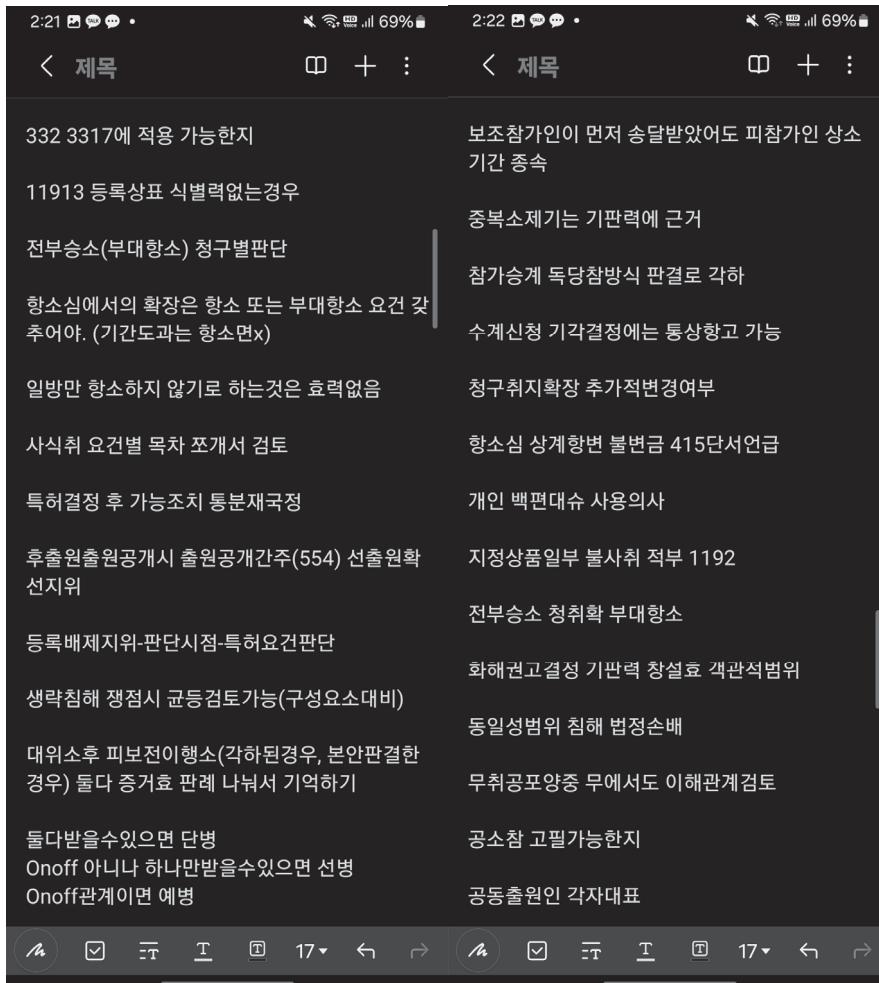
대생 시리즈의 장점은 컴팩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날레는 그 장점이 극대화된 책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접한 수많은 정형화된 수험서 가운데 피날레는 가장 특이한 형식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형식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서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아는 만큼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책이 뛰어나더라도 아는 것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적습니다. 그러나 피날레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 모두에게 활용도가 높은 교재입니다. 2차 상표법에 감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빠르게 답안의 구색을 갖추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표법의 전반을 신속히 상기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기본서를 바꾼 기득 시기에도 짧은 시간 안에 상표법 전반을 다시 떠올리는 용도로 피날레를 활용했습니다.

기본서와 판례집만으로도 상표를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 교재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한 동차생, 상표법이 싫어 회독이 계속 밀리는 분, 상표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 또는 답안 구성이 어려운 분이라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만의 장점과 개성이 독보적이기에, 설령 기본서는 점이 아닌 다른 것을 보더라도 상표법 공부 방향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피날레를 보며 답을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답노트 작성】

오답 노트는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실수가 반복되기에 오답 노트를 통해 실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분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에 상대평가인 시험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라도 작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이 하듯이 기본서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이지는 않았고 핸드폰 메모장에 작성하여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읽어봤습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했던 오답 노트의 일부인데, 적을게 생각날 때마다 막 적었기 때문에 과목별로 분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암기 방법】

1. 전반적 암기 방식

암기는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하는 것이었기에 특별히 암기 시간이나 암기량을 정해놓고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두문자가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은 두문자로 외웠습니다. 동차 때에는 주로 문장 통암기를 했습니다. 강약 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에 문장 하나하나를 영어단어 외우듯이 통째로 외웠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워드를 가려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득 때도 문장을 전부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비슷하지만, 각 문장의 논리 구조를 납득하며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도록 했고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더 힘 줘서 외웠습니다. 동차 때처럼 사소한 조사들을 외우느라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판례암기 - 분설해서 외우기

민사소송법의 경우 판례를 외우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외우더라도 특히, 상표에 비해서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암기 편의를 위해 최대한 판례를 끊어서 외워보려고 했습니다. 확실히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오래 기억에 남고 촘촘하게 외우기가 용이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나름대로 판례를 분설해서 암기했던 예시입니다. 원문자 부분이 끊기는 부분입니다. 요령이라기보다는 정공법에 가깝지만, 제가 자신 있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부 방법 중 하나입니다.

<p>b. 상소불가분원칙 적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p> <p>i)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①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②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십되어(=상소불가분) ^③심판대상이 된다(=이익·불이익변경금지원칙배제) (*대판 2014.3.27. 2009다104960). 판례는 “공동소송인들 및</p>
<p>1) 할 수 있는 행위</p> <p>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인에 관한 제90조 제2항(특별수권사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①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②일체의 소송행위(특별수권 없이 취하, 포기·인낙, 화해, 상소,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③심급대리원칙 부작용=16)는 물론 ^③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도 할 수 있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선정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p>
<p>iii) 판례</p> <p>종전 판례는 “^①독립당사자참가와 같은 삼면소송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존속한다”고 했다(대판 2004.7.9. 2002다16729. 院2, 18). 전원합의체 판례는 “(권리승계) 승계참가에서 ^①승계된(중첩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인용될 수 없기 때문에 ^②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③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처럼 필수적 공동소송규정을 적용해 (두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확정할 필요성이 있다(21·23, 理23, 行23)”고 하여 견해를 변경했다(*대판 전원 2019.10.23. 2012다46170=</p>
<p>3)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지속 여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고지한 경우에 참가효까지 발생함에 비취 볼 때) 고지자는 ^①소송고지를 통해 당해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②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해 권리행사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③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위 2009다14340. 14. 甲이 S의 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고 B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p>

<p>i) 동 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기판력 <i>창설적: 새로 생긴다 / 기판력: 못 바꾼다.</i> “화해권고결정은 ①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②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③중전 법률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대판 2008.2.1. 2005다42880). “그리고 다른 법률관계에 관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p>
<p>② 후소 원고의 원고적격 흡결 여부 반면 ①채무자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②대위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소유권이 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결과, ③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판례도 있다(대판 2014.3.27. 2009다104960,104977. P72-6 참조).</p>
<p>√ iv) 변론종결 후 재산분할협의 사실 <i>사해행위인</i> ①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했으나 ②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인용(나머지 상속분은 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③그 기판력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1.6.30. 2011다24340, 理20).</p>
<p>8.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무자를 대위한 채권 청구(불가) ①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이루어져도, ③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해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④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5.11.17. 2012다2743).</p>

3. 조문 번호 암기

저는 조문 번호를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떤 답안이 좋은 인상을 주는지 수험생 관점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충실히 병기한 답안이 그렇지 않은 답안보다 좋아 보일 것임은 법학에 조예가 없는 저에게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조문 번호까지 최대한 외우려고 했습니다.

[기본서 정리 방법]

저는 고교 시절 암기과목을 공부할 때 거의 모든 글자에 형광펜을 치면서 공부했습니다. 산만한 탓에 형광펜을 치면서 읽지 않으면 오롯이 그 문장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차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기본서에 두서없이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같은 책을 반복 회독해야 하는 시험에서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기득 때는 기본서를 정리하면서 조금 더 일관성을 가졌습니다. 우선 많은 분이 하듯이 목차 준위별로 색을 달리하여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어떤 대단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잘 외워 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가독성을 약간이라도 높여보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본문에는 형광펜을 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키워드나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싶더라도 샤프나 지워지는 볼펜으로만 표시했습니다. 공부할수록 새로운 것이 보이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편이고 깔끔하게 필기하고 정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서 기본서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적어도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정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서에 GS 출제 여부나 GS에서 틀린 부분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GS 복습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서에서 일일이 찾아 표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GS 자료와 기본서를 별개로 회독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마치며

저는 살면서 될 것 같은 일에만 도전해 왔습니다. 변리사 시험도 '적어도 기득에는 붙겠지' 하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처음으로 안 될 수도 있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시험은 저에게 겸손과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늘 하고 싶은 일을 고르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피하는 쪽을 선택했고, 공부도 마음 내키는 대로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험에서 '최선'은 '나름대로 열심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고 모두가 간절하기에, 이 시험에 딱 맞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그저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이 어떤 사고 구조를 요구하는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스스로를 그 틀 안에 억지로라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수기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끝내 어떻게 자기 방식을 찾아갔는지에 집중해 읽어 주신다면, 분명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